

## 「技術士法」은 다시 制定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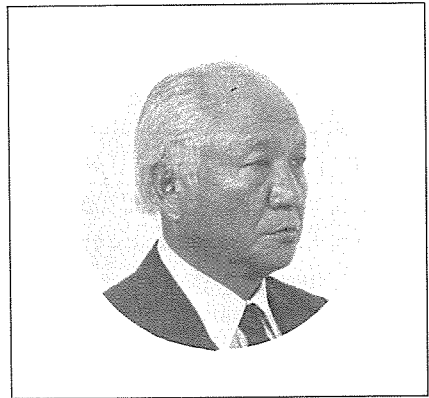
### 技術士의 体系的관리·육성시급

『技術士란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오랜 實務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분석, 시험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독 등의 기술업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韓國技術士會 金慶植회장(김경식특허법률사무소 소장)은 學者는 박사학위를 획득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지만 技術者에게는 바로 이 기술사자격 취득이 기술자로서의 박사학위나 마찬가지로 그 해당기술분야의 최고의 박사가 바로 技術士라고 강조한다.

더군다나 기술사는 기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만 7년 이상 實務에 종사했거나 대학졸업자로서 9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간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기술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기술사가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오랜 경험이 수반되어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수준높은 기술자가 탄생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우리나라의 기술사는 機械·金屬·化工 등 20개 분야의 100개 資格種目에서 해마다 2-3백명씩 배출되고 있는데 제 1회(67명 탄생)인 1964년부터 28회에 이르는 현재까지 총 4,693명(科技處 소관분야 2,253명, 建設部 소관분야 2,440명)이 배출되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술사를 관리하고 보호해 줄 技術士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사의 합리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 기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技術士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金慶植 회장

합니다.』 金회장은 건축사는 건축사법을 갖고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도 다 自己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自己法을 갖고 있는데 반해 높은 수준의 기술자를 자격만 부여해 놓고 이를 관리 육성할 법이 없다는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技術士法의 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사실「한국기술사법」이 애당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인 1963년 11월에 「技術士法」이 제정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했는데 67년 4월 과학기술처가 설립되면서 기술사법은 과기처로 이관되어 운영되다가 76년 12월에 폐지되고 말았다는 것.

이는 제 3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인 73년에 技術用役育成法(2월)과 國家技術資格法(12월)

이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기술사의 자격 및 관리를 이들 법에 의해 관장케 하였기 때문.

그러나 金회장은「국가기술자격법」은 각종 기술 자격의 檢定과 登錄을, 「技術用役육성법」은 技術用役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것이지 기술사의 관리나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므로 기술사의 檢定에서부터 등록 관리등 전반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독자적인 기술사법이 다시 부활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法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目的을 달하면 없애기도 하고 또한 발전시키기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법은 永久의 이어야겠지요. 특히 2천년대 세계 10위권의 技術先進國으로 진입코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도 韓國技術士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金회장은 기술사제도는 미국이 1907년에, 불란서는 34년, 日本은 57년에 각기 법으로 제정된 후 몇차례 개정을 가하면서도 獨自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있던 법을 폐지시켜 기술사제도가 점점 퇴보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분야의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技術士法 再제정은 기술사 모두의 염원이라고 강조한다.

또 이와함께 해마다 배출되는 모든 기술사들은 반드시 기술사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모든 기술사들이 기술사회 회원이 됨으로써 기술사들의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사회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韓國技術士會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및 국가사회와 인류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연마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여 해외기술교류 향상을 기하고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65년 2월 기술사법에 의거 설립됐다. 그러다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77년 9월 17일에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로 발족한 것.

현재의 회원수는 모두 2,687명(이중 과기처소

관분야 1,758명, 건설분야 929명)인데 기술사회는 회원들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해 산하에 「정보처리」 분회를 비롯 「안전관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통신」 「광업」 「산업응용」 「국토개발」 「토목」 분회 등 10개 分會를 두고 있다.

『앞으로 이들 分會조직을 활성화시켜 각 분야의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를 비롯 산업기술지도 및 기술사업부의 개발과 향상, 기술용역 주도확립 등에 힘쓸 작정입니다.』 金회장은 이외에도 기술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옹호에도 힘쓰고 기술사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는 한편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건의 및 자문, 해외기술 교류확대에 힘써나갈 생각이라고 밝힌다. 특히 해마다 정기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日本 기술사회와의 모임 외에도 미국·구라파 등지의 기술사와의 교류를 통해 지질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또한 기술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補修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보수교육을 통해 기술사간의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金회장은 技術士會가 앞으로 모든 기술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키 위해 해서 會의 조직과 기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술사 자신이 한일에 긍지를 갖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기술사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다.

『技術의 뒷받침없이 科學의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科學의 idea는 젊었을 때 많이 얻을 수 있지만 技術이란 과거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싹을 틔워야 꽃이 피므로 서두른다고 해서 일조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技術축적에는 王道가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 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겠습니다.』

(權光仁 記)